

주부신행담

천식과 불법인연 ㉔

내가 불교를 알고 부처님을 모시는 불제자가 된 것은 모태 신앙 때문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시골 아주 작은 마을이다. 아들 네 명에 고명딸인 나 하나만 두신 부모님은 나를 유독 귀여워 하셨다. 옛 어른들 대다수가 그러하셨듯 어머니는 일년에 몇 번씩 절에 다니셨다. 고향 근처에는 심학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다. 북한산이나 설악산 같은 곳을 올라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 산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이라고 여긴 적도 있다. 산 중턱쯤에 약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절에 가시곤 했다. 때로는 촌노들처럼 서울 나들이 겸 가신다고 "우리는 서울 새 절에 간다" 하시는 것을 들었다. 새 절이란 서울 신촌에 있는 봉원사였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 마구 졸라 대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어려서 산을 오를 수가 없으니 네가 크면 데려간다 하셨다. "엄마, 그러면 절은 뭐 하는 곳이야?"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어려서 엄마 말을 잘못 알아 들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식구를 잘 되게 해달라고 바는 곳이란단다" 라고 했다.

헤질 무렵 절에서 돌아오신 엄마께 나는 또 물었다. "오늘 절에서 무엇을 하고 왔어?" 그러나 엄마의 대답은 여전히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뿐이었다. 그녀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어른이 되어 엄마가 되면 내 아이들에게 자상한 엄마가 될게야 라는 생각을 했다. 또 가끔은 이웃 할머니들의 불가사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몇 년을 도란 도란 어떤 할머니가 밤중에 승천을 하였다는 이야기. 그때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 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던 할머니들이 지금은 고인이 되어 어느 곳에 가 계시는지 삼가 명복을 빈다.

서 어른들께 언니 스님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해 주셨다. 키는 작지만 아주 똑똑하고 아주지게 앞장서서 일을 잘 한다고 하셨다. 우리 집에 다니러 온 언니 스님이 나보고 "종례야, 나하고 절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언니 스님을 막 꾸중을 하시려는 거였다. 나 또한 언감생심 꿈도 못할 일이라 따라 나서지를 못했다. 그 언니 스님때문이라도 부처님과 인연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 그런데 그 언니 스님이 수행생활에 열심히 정진하던 중에 유방암에 걸려 그만 극락세계로 갔다. 내게 여자 형제가 없어서인지 많이 따르그 좋아했는데 언니 스



그림 · 이준석

투병중에도 불교방송 교리강좌 청취 불법은 실천이 중요하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절이나 부처님을 어렵게만 떠올리던 심대 중반에 외숙촌언니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가끔 우리집에도 들렀는데 나는 스님이라 부를 줄 모르고 그냥 언니라고 불렀다. 그때는 스님 법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머리만 깎으면 그저 스님이라는 생각 밖에 나질 않았다. 그 스님 언니가 머물던 절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무슨 선원이었다. 그 절에 한 번 가 봤는데 비구니 노스님도 계시고 언니 스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스님들 공부하시는 강원 같았다. 노스님께

님이 입적하자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다. 정말 지금도 보고 싶다. 언니가 머물던 그 절을 가보고 싶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 내 나이 스물세살때 결혼을 하였고 결혼생활 수년 동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활고도 여러 번 겪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처님을 깨닫게 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부처님이 생각나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를 찾게 되었다. 암자의 문을 두드리기는 하였으나 절에 자주 가 본적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내게 병마가 찾아왔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이 시작됐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절에 있던 말을 불렀다. "미영아, 미영아, 허락" 얼마, 왜 그래요? 진작 말씀하시지 이렇게 숨도 쉬기 힘들실 때까지 왜 말씀 안하셨어요"라며 우는 딸애의 소리가 들리면서도 내 아픔에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 한 사나흘인가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다. 그러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확실한 병명을 알기 위해 다시 입원해 검진을 받은 결과 해소전식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옛날부터 알고도 죽는 병이 해소병이라는 말이 있다. 그때부터 나는 해소전식을 고치기 위해 병마와 싸웠다. 호흡기 질환계의 박사님이 주치의가 되어 삼년이란 긴 세월을 치료해 보았지만 별 효험이 없었다.

치료도중 병원 예약 전이라도 또 통증이 심해지면 공짜로 할 수가 없어서 집 근처 의원의 의사가 왕진을 온 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힘들어 하는 내 모습을 지켜 보던 이웃 아주머니가 아는 큰 스님께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시기에는 청와대 근처에 있던 절이었다. 큰스님께 내 병세를 말씀드렸더니 자세히 듣고 계시던 스님께서는 많이 힘들겠구나 하셨다. 스님께 나를 소개시켜준 아주머니는 구명사식이라는 것을 부탁드렸다. 그분의 부탁이어서인지 스님께서 폐히 승낙을 하시고 기도도 해주셨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는데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줄라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내 병이 낫겠지 하는 기대에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해서인지 며칠이 가기 전에 나올 수 있었지만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발병의 원인은 그 옛날에 예방주사 한번 맞아 보지 못해서 홍역이라는 무서운 병을 앓았는데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그것이 지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겨울만 돌아오면 감기가 떠날 날이 없어 괴로운 날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무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불교방송이 개국했다. 개국한지 일년쯤 지난 뒤에 절에만 명목적으로 다닐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싶었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리는 교리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교리강좌에 다니면서 덕망 높은 큰 스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스님은 참 진 치와 경 계 해, 육 바라밀 등등 부처님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행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계속)

이종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새천년 - 우리 몸에 부족한 기를 충전시켜주십시오!!

※ 기가 좋으면 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가까운 분들께 선물해 주십시오 ※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련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잠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빛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생방송)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명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박)
- 저혈압으로 수심년 고생하다 좋아질(주부 강양심)
- 늑막염악기 건강이 호전(이호준)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마외봉 (침전제 순금도금)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td> <td> <td> <td> <td> <td> <td> <td> </td></td></td></td></td></td></td></td>	<td> <td> <td> <td> <td> <td> <td> </td></td></td></td></td></td></td>	<td> <td> <td> <td> <td> <td> </td></td></td></td></td></td>	<td> <td> <td> <td> <td> </td></td></td></td></td>	<td> <td> <td> <td> </td></td></td></td>	<td> <td> <td> </td></td></td>	<td> <td> </td></td>	<td> </td>	
--	--	--	--	--	--------------------------------	----------------------	------------	--

· 전화를 주시면 혹은 Check 해 드립니다
· 카드로도 결제가능 무료배송

· 담마도 순금카드, 액자 주문 받습니다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무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035728 (예금주:김 건순)

**휴대폰만큼 작게!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 시리즈

- ① 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값 3,300원
- ② 아함경 문연 스님 역/값 3,800원
- ③ 화엄경 김지현 박사 역/값 3,800원
- ④ 유마경 박용길 역/값 3,500원

작은경전 시리즈 ① 오법연화경 ② 능엄경 ③ 부오문종경-지장경
④ 금강경 ⑤ 법유경 ⑥ 대반열반경 ⑦ 윤회니파라 ⑧ 본생경
⑨ 이적경전 ⑩ 거거천계인과경 ⑪ 달린다경문도 계속 간행합니다.

시간!

짧은 시간도
많은 것
사유됩니다.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통치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갖지 말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목 같은 명언들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분하게 들춰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에 이어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스님 엮음(시인, 불교신문 사장) 46판 양장 / 값 5,000원